

# “코로나 백신 안전수송하라”...경찰 투입

### 경찰, 수송·보관·접종 등 단계별 대책

### 수송 경로, 보관 시설 중요도별 지원

### 경관 배치·순찰 등...탈취·시위 대응

### 허위 정보 단속, 불법행위 수사 계획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과 접종을 위한 단계별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탈취, 도난 대응과 함께 접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란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코로나19 백신 수송, 보관, 접종 관련 단계별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수송 경로, 보관시설별 중요도에 따른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방역당국은 이달부터 코로나19 백신의 단계적 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6일 접종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4~28일 경기 이전 통합물류센터 수송 후 시설 배송이 이뤄진다는 방침이다.

화이자 백신은 26일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물류센터 경유 없이 5개 접종센터로 배송되고 다시 코로나19 치료 병원 약 140곳으로 전달될 예정이

다. 먼저 경찰은 수송 단계 에스코트, 교통관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시위대 도로점거, 백신탈취 시도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과 안동공장에서 평택, 인천 등 통합물류센터 수송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된다. 교통순찰차, 특공대, 기동대 등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최고 수준 안전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물류센터에서 중앙, 권역, 지역별 접종센터 등 수송은 두 번째 수준으로 관리된다. 순찰차 최소 1대를 두면서 수송 규모에 따라 배치를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물류센터에서 위탁의료기관 등 수송은 개별 판단에 따라 지원 검토가 이뤄진다. 수송 트럭이 보건소, 의료기관 등을 순회하는 과정에 유동적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백신 입고, 출고 단계에서는 경찰서·시설 연계가 강화된다. 순찰과 함께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경찰력 배치를 늘리는 등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백신 보관 단계에 대해서는 시설별 관리가 이뤄진다. 안동공장, 평택·이천물류창고 등 현장 상황실에 경찰관이 배치되며 월당 시도, 기습시위 대상 훈련이 매일 전개된다.

구체적으로 생산, 물류시설에는 전담 부대 2개 팀이 배치되며, 2시간 간격 순찰이 예정됐다. 중앙·권역·지역 예방접종센터에는 접종 시간 중 무장경찰관 2명이 고정으로 배치된다.

또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 대상 순찰도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력 배치, 연계 순찰 등을 통해 백신 탈취, 파손 시도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접종 단계 질서유지 활동도 예정하고 있다. 의료진 상대 시비·폭행 제지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관 중 백신 탈취, 도난 방지 활동도 추진된다.

또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단속이 나선다는 계획이다. 접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선욱기자

## 광주 양동시장 도로에서 외제 SUV 폭발

22일 오전 11시42분 광주 서구 양동전통시장 인근 도로에서 수입산 SUV차량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남성 운전자 1명이 팔에 가벼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폭발 직후 차체에 불이 붙었으나 자체 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광주 모 대학교 흥기 들고 침입 20대, 절도미수로 입건

광주의 한 대학교 대학원 건물 주변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2일 대학원 건물에 무단 침입, 절도 행각을 벌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절도미수)로 A(2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9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한 대학원 주변에서 마스크를 쓴 채 흥기를 들고 침입, 절도 행각을 벌이려다 교직원·학생을 보고 놀라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곧바로 현장을 빠져나가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도주 직후 흥기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 뒤쫓아 범행 나흘 만인 이날 오전 지역의 한 목욕탕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침입 목적이 과거 범행 전력으로 미뤄 금품을 훔치려 한 것으로 보고, 절도 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유기한 흥기를 수색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소득 없다’ 속여 기초수급비 1억원 챙긴 40대 집유

소득이 없는 것처럼 속여 1억 원 상당의 국민기초생활 수급비를 부정 수령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 20일부터 2019년 1월 18일까지 소득이 없는 것처럼 관할 구청 공무원들 속여 생계·주거·장애인 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급여 1억 92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자립 생활센터 등에서 일하면서 월 60만 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A씨는 소득 발생 사실 신고 뒤 심사(차등 지급 여부 등)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장기간 부정행위 방법으로 적지 않은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받았다. 부정 수령한 급여 또한 반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신과 자녀가 장애인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별거 중인 아내 자택 앞 휘발유 뿌린 70대 검거

아간시간대 별거 중인 아내가 사는 아파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위협적 행동을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58분께 광주 서구 모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휘발유 통을 든 채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 복도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있는 A(74)씨를 붙잡았다.

A씨는 수년째 별거 중인 아내의 집에 찾아가 현관 문 앞에서 ‘물 한잔을 달라’고 청한 뒤,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배낭에 숨겨둔 휘발유 통을 꺼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만류한 이웃에 의해 실제 화재로 이어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목포·무안 방판 코로나 추가 확진 잇따라

### 가족·지인·고객 등으로 감염 확산

전남 목포와 무안지역 화장품 방문판매발 코로나19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어났다.

방문판매 고객인 완도지역 어린이집 교사로 확진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목

포에 거주하는 완도 소재 어린이집 야간반 교사(832번)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교사는 목포에 있는 화장품 방문판매업소의 고객으로 지난 15일 해당 사업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사가 완도지역 어린이집 야간

반 교사로 활동하고 있어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 10명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했다.

현재까지 목포와 무안지역 화장품 방문판매발 확진자는 14명으로 목포 4명, 무안 9명, 광주 1명이다.가족과 지인, 고객 등으로 확산됐다.

방역당국은 전남 801번 확진자를 지표환자로 추정하고 역학조사 중이

다. 801번 확진자가 지난 3~4일 서울 대병원을 방문했으며, 당시 서울대병원에서 간호사가 확진됐다.

신안군 지도읍 침례교회 집단감염은 793번 교인의 남편인 794번 확진자를 주목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794번 확진자가 지난 달 21일 화순군청 인근을 방문했을 때 기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누적 확진자는 832명이며 지역감염이 764명, 해외유입이 68명이다.

김정환기자

## 행정명령 어기고 비대면 예배 강행한 교회 2곳 입건·송치

순천경찰서는 ‘코로나19’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한 종교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해 경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A 교회는 순

천시의 연말연시 ‘코로나19’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1월 3일까지 종교 시설 ‘비대면 예배 원칙 행정 명령’을 지키지 않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 교회는 예배 영상 제작·송출을

담당하는 인력 제한을 넘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등 행정명령 위반 혐의다.

순천경찰서는 방역당국의 고발에 따라 입건 조사후 검찰에 송치했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령한 행정명령의 위반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벌칙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